

4·11 총선 현장

“강진 보선 경선후보 여론조사 않고 압축 문제” 지적

결정 하듯만에 재심사 ‘졸속’ 비판

민주·순천·무안은 보선 후보 각 3명씩 선정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과 함께 치러자는 순천시장·무안군수·강진군수 수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후보자 압축을 시도했으나 하루 만에 결정이 뒤집혀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임종석 사무총장)는 지난달 28일 오후 순천시장 선거 경선후보를 운영철 전 순천시의원, 허석 전 순천 시민의 신문 대표, 허정민 전 전남도 정무특별보좌관(가나다순) 등 3명을 선정했다.

또 강진군수 선거 경선후보에는 김철주 전 전남도의원, 나상욱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박만호 전 전남

도행정지원국장 등 3명, 강진군수 선거 경선후보는 강진원 전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과 박원철 전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등 2명으로 각각 압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일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요청했다.

기초단체장 공심위는 이 같은 안을 올리면서 “6자례 회의를 통해 심사를 완료, 순천시와 무안군은 3인을 경선후보자로, 강진군은 2인을 경선후보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강진군수 경선후보자 선정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체원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경선후보자에서 배제된 데 대해 박지원·김부겸 최고위원 등의 질의를 받고 재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두 최고위원은 광주시의회 부의장까지 하고 고향 강진에서 여론이 좋은 후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경선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경쟁력도 비교하지 않고 경선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고위원들의 지적이 엇갈리면서 최고위원회는 “서 전 부의장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후보를 다시 결정하라”며 재심을 시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공심위는 강진군수 선거 경선

후보를 조만간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경선(모바일 투표+현장투표)으로 시행되며 선거인단 모집은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한편,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4·11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국민참여경선 또는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당공심위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시행도록 했다. 또 경선 방법은 총선 준비로 시·도당의 경선관리 역량이 부족하므로 ‘전화면접여론조사’ 방법을 이용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29일 CMB광주방송 2층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최현주 광주모금회장, 강원영 봉사단장 및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정명훈 일행 평양 도착

지휘자인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통신은 이날 “서울시립교향악단 및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니 관현악단 음악 감독인 정명훈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정 감독은 다음달 14일 프랑스 파리 살 플레엘에서 열리는 북한의 은하수 교향악단과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에서 지휘를 맡는다. /연합뉴스

김종인 비대위원 사퇴 거듭 시사

이재오·윤진식 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그동안 내가 말해서 관찰된 게 하나도 없었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비대위 활동) 그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나”는 질문에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었느냐”며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충북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의 사퇴를 만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잘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수습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김 위원이 좋은 정강

“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건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변개발 1조 특집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일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예정대로 건설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학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크루즈 입항 가부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

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설을 비롯한 항만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키로 해

책, 좋은 정책을 만들에도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 말이 중요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전날 “당이 인적쇄신을 해야 하는데 공천 방향이 잘못 잡혔다”며 “이 점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정책쇄신에 대해 특별한 아이템도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비대위의 기능도 거의 다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한다. 며칠 뒤 입장 을 밝히겠다”고 말해 자신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개발은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온 혼정부족으로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의 17%가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 발전 사업에 오는 2021년까지 1조 771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5787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조영택 “독거노인 돌보미는 헬맥”

민주통합당 조영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29일 ‘독거노인 돌보미’들과 대화를 갖고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돌보미들은 헬맥과 같다”며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조 예비후보는 “보편적 복지가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는 돌보미들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짜임새있는 운영과 정확한 전달체계로 외롭게 흘러 지내는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출마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공중분해로 원 지역구를 잃은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9일 “농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며 뛰어들어갈 것”이라며 새롭게 획정된 영광·함평·장성·담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 군이 포함된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 획정으로 뛰어든 후보에게는 편과 경기와 다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절차 재고를 촉구했다.

이정현, 중기중앙회서 감사패 받아

새누리당 이정현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29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제50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접대비 일몰제도 3년 연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문화 경영 확산과 문화접대비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민호, 3일 선거사무소 개소



통합진보당 윤민호 북구 을 국회 의원 예비후보는 3일 오후 4시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옆 현대빌딩 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종선 승리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후보의 프리허그를 시작으로 각계 지지 발언과 다양한 문화공연, 후보 영상 상영과 인사말 등이 진행된다. 특히 후보의 삶과 정책을 소개하는 갤러리전과 스마트 영상 보기, 응원 메시지 등도 준비됐다. 개소식에는 당원 및 지지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승남 “공적 아동보육 시스템 확대”

민주통합당 김승남 고흥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아동보육 시스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축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유아 공동보육시설 설치, 보편적 공공보육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주요공약 홍보물 발송



민주통합당 박광온 해남·완도 진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자영업이 단단, 농어민이 활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17개 주요공약이 수록된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주요 공약은 농어업인, 장애인,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복지분야를 포함한 지역 특화 산업개발 등이다. /최기원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영암 Y-MART 전점 연락처

첨단부영점

광산구 산월동 885-1 부영2차 상가
☎(062)973-5803

매곡점

북구 매곡동 24-44
☎(062)573-5004

수완점

광산구 신가동 1287 종홍S클래스 정문앞
☎(062)961-4851

일곡점

북구 일곡동 816-3 동아아파트상가
☎(062)572-8100

종원점

서구 금호동 종원팰리스빌@115동 상가
☎(062)681-3630

본점

북구 용봉동 1103현대1차정문앞
☎(062)527-4851

금호푸르지오점

서구 쌍촌동 904 금호푸르지오앞
☎(062)352-5600

비아점

광산구 도천동 629-1 비아증후정문앞
☎(062)956-3364

주월점

남구 주월동 효인병원 옆
☎(062)681-1127

운남점

옹두점

북구 옹두동 311-10첨단자이2차앞
☎(062)571-4851

노대점

남구 노대동 858송화미을휴먼시아5단지정문앞
☎(062)676-0057

산수점

동구 산수동 523-44신수오거리에서무등신방면
☎(062)228-0085

신창점

광산구 신창동 1118 호반아파트상가
☎(062)951-0559

증통점

광산구 도천동 627-1 증홍아파트 상가
☎(062)955-1118

첨단금호점

운입점

북구 운암동 364-2 롯데낙천대정문앞
☎(062)514-4851

동림점

북구 동림동 245삼익아파트정문앞
☎(062)512-0778

삼각에이스점

북구 삼각동 531 송산그린아파트정문앞
☎(062)573-1127

신창부영점

광산구 신창동 1187 신창부영1차상가
☎(062)962-3100

월산남부점

남구 월산동 아성카클리닉 옆
☎(062)369-7890